잎세

[IP世] ; IP세상, 세상을 세움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뉴스레터
2011년 3월호 (통권 제3호)

02 영재 SECTION
Too Early, Too much!

04 진로 SECTION
[부모 커리어 코칭(CAREER COACHING 시리즈 2]
우리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06 심리 SECTION
'기억' 이란 습작

09 역량 SECTION
[영재기업인의 핵심역량 2]
도전정신

10 독자편지
한 뼘 더 사랑하기

12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소식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한국발명진흥회

Too Early, Too much!

재능의 조기발견, 조기교육 등 조기영재성(precocity)에 대한 사회와 부모님들의 관심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님들이 이를 마치 자신의 의무이자 자녀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건인양 여기고 있으신 듯 합니다. 조기영재성에 대한 연구는 성공한 성인의 아동 및 청소년시기에 대해 역추적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현재 세계적으로 성공한 인물이 지나온 시간을 통해 그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밝혀내는 것이지요. **조기영재성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은 위대한 역사적 천재들(칸트, 코페르니쿠스, 바하, 뉴턴,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중에서 어린 시절 영재성이 있다고 인정되었던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뉴욕에 있는 IQ 155이상의 최고 영재들을 교육하는 Hunter College Elementary(1920년 설립) 졸업생들의 30년 후 삶을 추적해본 결과,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높은 교육수준과 안정적인 직업을 지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으나, 그들 중에 어린시절의 영재성에 견줄만한 업적, 즉 노벨상 또는 퓰리처상 수상자와 같이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재아(genius kids)는 있었으나 천재(genius adults)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천재아(신동)와 실제 업적을 이루어낸 천재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흔히 조기영재성을 나타내는 영재아들은 영재학습자(gifted learner)인데 비해 실제 성인 영재들은 활동가(gifted doer)입니다. 예를 들면, 음악에 조기영재성을 보이는 아동은 위대한 음악가들의 작품을 모방하고 연습하며 이를 자신의 것으로 재구성 합니다. 즉, 모방에서

창조로 도약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보이는 기술의 빠른 습득 또는 뛰어난 학습능력이 훗날의 성취나 업적을 나타내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재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미래의 성공요건으로 믿고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위대한 업적 또는 성취를 이루어 내는 것일까요? 그 중요한 KEY는 바로 흥미 즉, 동기(motivation)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 중에는 다윈, 세잔느와 같이 어린 시절 영재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주제)을 찾아 불꽃같이 열중해 결국에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경우가 많습니다. 영재부모님들은 모차르트 아버지의 환상에서 벗어나야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자녀가 보이는 재능(뛰어난 학습능력 또는 빠른 기술습득능력)에 집착해 자녀가 자기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전에 자녀를 강하게 훈육하고 과도하게 훈련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재부모님들이 늦게 재능을 꽃피우는 late bloomer인 다윈이나 에디슨의 경우와 같이 위대한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양식이나 인성적 특징인 "호기심(curiosity), 끈질긴 집착력(dogginess), 결단력(determination)"이 타고난 지적 재능보다 앞선 성공한 천재의 중요 요건임을 이해하고 자녀를 대하신다면, 자녀가 영재아들의 인생 성공의 딜레마 "It is okay but it isn't extraordinary"를 넘어 자신의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이룬 진정한 영재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호에서는 자녀의 영재성을 꽃피워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구체적 비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 은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교육학 박사
교육심리, 영재창의성 전공
helee71@kipa.org
02-3459-2745

[부모 커리어 코칭(CAREER COACHING) 시리즈 2]

우리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엄마! 나는 커서 무엇이 될까?' '예전에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생물학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등 자녀가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이야기할 때 당혹스러웠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녀들은 성장하는 동안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커리어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커리어에 대한 수많은 변화와 가능성, 문제들 사이에서 갈등할 때 가장 바람직한 부모 커리어코칭 두 번째 단계는 자녀가 자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하는지, 중요하게 여기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모아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게 되면 커리어에 있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들은 많지만 커리어 분야에서 알아야 하는 공통적인 것은 흥미, 가치관, 기술, 성격, 이 네 가지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란 자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커리어에서 흥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기대나 흥미가 아닌 자녀의 흥미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존중하여 받아들이는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에 더불어 자녀의 흥미를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술이란 자녀가 잘 하는 것입니다. 기술은 자신의 일에 있어 실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커리어의 성공에 있어 기술이나 능력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기술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와 태도라는 것을 자녀가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셔야 합니다.**

가치관은 자녀들이 삶에서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기준으로 커리어를 선택하고 결정하면 자녀는 진실한 마음과 신념으로 자신의 삶과 일에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커리어를 결정 할 때 가치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격은 자녀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품성입니다. 성격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커리어 환경이 다릅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자녀의 성격과 선호 직업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네 가지에 대한 간단한 커리어 코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흥미 커리어 코칭

① 자녀의 흥미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② 자녀와 함께 생각해보기
- 가장 좋아하는 것 찾기
-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할지 찾기 등

③ 자녀가 자신의 흥미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④ 흥미 관련 검사 받아 보기

기술 커리어 코칭

① 자녀의 기술을 관찰하기
② 자녀와 함께 생각해보기
-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찾기
- 평생동안 진로에 사용하고 싶은 기술 등

③ 자녀가 자신의 기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④ 기술, 적성 관련 검사 받아 보기

가치관 커리어 코칭

① 자녀의 생각과 선택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② 자녀와 함께 생각해보기
- 좋아하는 말이나 단어
- 커리어 선택에 있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기 등

③ 가치관 관련 검사 받아 보기

성격 커리어 코칭

① 평소 자녀의 행동, 생각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② 자녀와 함께 생각해보기
- 자신의 성격에 대해 생각해보기
- 성격과 선호직업 간의 관계 생각하기 등

③ 성격 관련 검사 받아 보기

※ 진로 관련 온라인 심리검사 :
www.career.go.kr, www.work.go.kr,
www.jinhak.or.kr, www.career4u.net 참고

부모 커리어 코칭 2단계에서 부모님들은 자녀가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녀가 커리어를 고민하면서 보다 성숙해 질 수 있도록 진심어린 믿음과 격려, 지지를 항상 표현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유 효 현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교육학 박사
교육심리학 전공
hhyoo@kipa.org
02-3459-2746

'기억'이란 습작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겨울도 이제는 막바지에 들어선 느낌입니다. 올 해 겨울도 뒷심이 만만찮지만, 한창 얼어붙었던 1 · 2월에 비하면 이제는 좀 살만합니다. 날이 풀릴 기미가 보이니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마음에 사진첩을 뒤져보았습니다. 지난여름 친구들과의 휴가 사진이 유독 눈에 들어오더군요.

지난여름의 기억

지난여름, 울산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목적으로 지어진 〈울산 문수월드컵 경기장〉은 생태학습장과 호수공원이 자그마하지만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데다 갖가지 체육시설과 경기장이 잘 갖추어져 있어, 가족체육공원으로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휴가라고 하기에도 궁색한 주말 나들이였지만, 오랜만에 지인들과의 만남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었나 봅니다. 사진들을 보고 있으니, 친구들과 별 것 아닌 이야기에 크게 웃고, 천천히 공원 주변을 산책했던 시간이 금세 그리워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기억해 내기는 힘들어도 그 날의 기분, 우리 대화의 분위기, 오리 떼의 귀여운 움직임, 심지어 호수 근처에서 잔잔하게 불던 바람이 뺨에 닿는 느낌까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어색한 것은 사진 속에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으로 미루어 볼 뿐인 그 날의 더위였습니다. 한여름이었으니, 덥기는 더웠으리라 짐작되지만, 얇은 소재의 여름옷을 입은 사람들의 더위는 지금 체험하고 있는 추위에 압도되어 현실감 있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더위'가 어떤 느낌을 의미하는지는 알지만, '그 날의 그 더위'를 생생하게 떠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일종의 기억실패가 일어난 것이지요.

기억실패

기억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를 저장하는 기억'이고 나머지 하나는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는 기억'입니다. 암기과목 시험을 벼락치기로 준비할 때 암기해야 할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만으로 고득점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 저장된 정보를 잘 꺼낼 수 있어야 전날의 벼락치기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실패는 이러한 두 가지 기억 중 어느 한 가지만 잘못되어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주 만물 어떤 것이든 제 나름의 한계가 있지만, 인간의 기억은 그 한계가 유난히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기억은 '망각'이라는 그림자를 동반하여 늘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만 같고요.

게다가 기억은 제멋대로이기까지 합니다. 어떤 기억은 떠올리지 않으려 해도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PTSD[1](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퇴역 병사들은 전쟁의 잔혹한 기억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워합니다. 눈앞에서 전우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장면은 고통스럽게 반복되어 이들을 괴롭히지요. 반대로 어떤 기억은 떠올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혀끝을 맴돌기만 할 뿐 소용이 없습니다. 설단현상(tip of the tongue phenomenon)이라고 불리는 이런 경험은 주관식 시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자주 경험했던 것입니다. 기억에 관한한 자신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대체 몇 명이나 되는 걸까요.

나약한 기억시스템에 대한 변명

이렇게 보니 인간의 기억시스템이 유난히 나약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망각은 기억을 그렇게 쉽게 압도하도록 애초부터 설계되었는지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기억이 망각보다 훨씬 강력한 정신작용이었다면, 그리고 컴퓨터 메모리에 파일을 저장하거나 삭제하듯이 우리가 기억과정을 좀 더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억으로 인한 지금까지의 무수한 고난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시스템이 지금의 이러한 모습인 데에도 나름의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 기억시스템의 두 가지 본질은 '학습'과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과거로부터 배우고, 정보를 축적며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능력에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하여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 무한정 학습하거나 기억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한계로 인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기억에서 한계는 축복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쓰레기 같은 기억 더미에 압도되어 우리의 정신은 엉망이 되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PTSD를 앓는 퇴역군인의 예는 어떨까요. 물론 이들은 원치 않는 불쾌한 기억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충격적인 기억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기억시스템에도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위험한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맞닥뜨리게 되는 환경으로부터 이전의 위험했던 경험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만약에 있을 괴로운 경험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생존을 위한 인간의 강력한 경고 장치이지요. 물론 PTSD를 앓는 군인에게는 이 경고 장치가 오작동을 일으키긴 했지만요. 세상 어떠한 좋은 시스템에도 오류는 있는 것처럼, 인간의 기억시스템도 예외가 될 수 없나 봅니다.

기억력을 높이기

의도치 않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인간의 기억시스템을 이해한 후에는, 이러한 기억시스템의 특성을 잘 활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무수한 기억술(mnemonics)들이 있습니다. 기억술이란 무언가를 많이, 그리고 빨리 기억

1) 극도로 위협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함으로써 공포나 무력감 또는 전율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증상

하는 구체적인 테크닉들입니다. 장소법(method of loci), 청킹(chunking), 등 몇 해 전 한국출판계를 주도했던 기억술 관련 서적들이 이러한 방법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안철수씨가 자신의 성공요인으로 메모하는 습관을 꼽았던 것처럼, 메모 역시 기억 자체를 향상시킬 수는 없어도 기억을 보조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흔히 사람의 인격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훌륭한 인격을 뚝배기와 같은 큰 그릇에, 부족한 인격을 간장 종지와 같은 작은 그릇에 비유합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기억을 창고에 비유해 볼까요. 사실, 기억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창고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창고와 우리 머릿속 창고는 전자는 채우면 채울수록 앞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지만, 후자는 그 반대라는 점에서 매우 다르긴 하지만요. 어쨌든 창고에 물건을 들여 놓는 것이 단순히 창고를 채우기 위한 목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이후 긴요하게 쓰일 때를 대비해 무언가를 보관해 두기 위해서는 다음번에 잘 찾을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머릿속 창고를 지식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기억으로 채울 때 중요한 것 역시 이후에 꺼내 쓰기 좋게 잘 정리해서 넣어두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기억을 높인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창고를 잘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여 새로운 것을 잘 들여놓고, 다음번에 잘 찾아 쓸 수 있게 조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창고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창고라도 잘 정돈되어 있지 않다면 정리된 작은 창고에 비해 나을 것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가장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기억하지 않아도 좋은 것, 혹은 기억하지 않는 편이 훨씬 좋은 것들에 관한 기억을 버리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미욕'과 '집착'이라고 표현하던가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신체에너지가 필요하듯, 우리의 정신작용을 위해서는 '정신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정신에너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공회전하는 것과 같이 엉뚱하게 에너지를 낭비하면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고민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을 문젯거리가 머리 한 쪽 구석에서 24시간 내내 공회전하고 있다면, 정작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정신에너지가 바닥나겠지요. 머릿속에도 공간을 만들어 두십시오. 우리의 두뇌라는 CPU의 활용범위를 좀먹는 나쁜 기억들을 버리고 정리하여, 머릿속 CPU가 여유있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명상과 휴식을 권해드립니다. 운동이나 명상, 혹은 음악이나 휴식 등을 통해서 에너지가 재충전되고, 복잡한 지적, 정서적 경험들이 정리되면 신체적으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한 활동은 우리의 정신을 치유하는 훌륭한 활동들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기억이라는 습작을 탓하지만 마시고, 타일러가며 잘 사용하는 좋은 방법을 체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울산을 한 번 찾아보심도 좋으실 듯 합니다.

최 민 경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심리학 박사
인지 및 발달심리학 전공
i321@kipa.org
02-3459-2743

영재기업인의 핵심역량 : 2. 도전정신

영재기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역량에 도전정신이 있습니다. 도전정신이란 목표달성에 있어 적극적 ·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보다 높은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어려운 현상을 과감히 타파하여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회의 각 분야에서 도전정신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연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영재기업인의 역량 중 도전정신은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뿐 만 아니라, 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이러한 도전정신은 Spencer의 리더 역량사전, Mercer컨설팅사 및 Expert컨설팅사 등의 역량사전 등에서 구성개념을 정의하였습니다. 도전정신의 하위역량으로는 혁신추구성(innovativeness)과 위험감수성(risk-taking)으로 구분됩니다. 혁신추구성은 다시 개방성과 변화지향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험감수성은 모험심과 상황대처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위역량	구성요소	개 념
혁신추구형	개방성	새로운 경험이나 생각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성향
	변화지향성	새로운 도전, 다양한 요구, 모호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선하려는 성향
위험감수성	모험심	하고자 마음먹은 과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위험이 따르더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성향
	상황대처 능력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기회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성향

위 표에서 제시한 도전정신의 구성개념의 내용을 토대로 학부모님의 자녀가 도전정신을 갖추고 있는지 한 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으로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다음 세 가지의 기준으로 다시 한 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둘째, '미래의 모습을 구상하고 있는가, 긍정적인가?', 셋째,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가?' 입니다.

만약 자녀에게 도전정신을 키워보고 싶다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스스로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만약 실패를 하더라도, '좋은 경험을 하였다' 라고 생각하게 하여 이를 바탕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윤 조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교육학 박사
직업교육, 환경교육 전공
yo3283@kipa.org
02-3459-2744

한 뼘 더

안녕하세요?
IP영재기업인 2기로 선발되어 오리엔테이션을 다녀온 이상경 엄마입니다.

합격자발표 후 아이가 학부모강연이 있다고 KTX 타고 같이 가자며 캠프를 내내 설레며 기다렸습니다. 저도 KTX를 처음 타고 아이는 기차를 처음 타니 거의 소풍가듯이 대전을 향해 갔습니다. 기차안에서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지금까지 4년동안 교육청 발명교실을 다니면서 다른 아이들은 학원가는 시간에 취미생활 하는 것 같아 애가 타기도 했지만 둘째 특유의 자유로움과 고집으로 여기까지 또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도착하여 강당에서 영재기업인 교육원을 소개하는 화면과 1기선배들의 활동을 보고 또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생동감 넘치는 교육원임을 느꼈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애쓰는 전문가들의 노력과 사랑이 느껴져서 그 자리에 학부모로 앉아 있을 수 있음에 가슴이 벅차 코끝이 찡했습니다.

상경이와 엄마한테는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큰 아이에 비해 손이 많이 가는 아이라 항상 걱정이었고 초등학교 2학년때는 급식당번하러 엄마가 학교에 갔다 온 날은 혼나고 매 맞는 날이었습니다. 선생님한테서 듣는 아이의 행동에 대한 지적이 곧 아이에게 화로 전달이 되었던거죠. 한 학기를 그렇게 보내고 지쳐 아이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새벽에 성당에 가서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 후 새 학년이 되어 부모보다 더 아이를 잘 아시는 담임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걱정으로 포장된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엄마의 푸념에 따끔한 충고를 주시고 내 아이에 대한 가능성을 미리 보여주시며 엄마의 마음에도 희망을 주시고 아이에게는 절제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아픈 시간이 지나고 4학년정도 돼서 아이는 심리적 안정과 동시에 학습적인 향상까지 급성장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경아 너는 바닷가 모래 속에 큰 진주였는데 그동안 모래 때문에 보이지 않다가 모래가 바람에 날려 이따만한 진주가 이제 보이는가봐 ?” 하면서 깊게 안아 주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면서 또 가장 가까이에서 보기 때문에 더 나은 아이의 모습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에 단점만 보게 됩니다. 그 단점만 채우면 더 위로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는 사이에 서로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되는지 알면서 멈출 수 없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신문만 펼치면

사랑하기

나오는 성공한 아이들의 모습에 마음의 여유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남의 자식 잘 된 것 보는 것도 괴로워 외면합니다. 어떤 계기로 크게 마음을 비웠더라도 3일이 가기 힘듭니다. 옆집아이가 아니더라도 비교할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전에 아이를 두고 혼자 집에 와서 아이의 자기소개서와 창간호 잎세를 다시 보았습니다. 오타도 한두개 있고 자신을 진솔하게 써 내려간 자기소개서를 읽고는 미안한 마음과 대견한 생각에 강당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래 속 진주라 했지만 아마 모래 속에 아무도 알아보기 힘든 원석을 캐주신 것 같아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상경이에게 IP영재기업인 2기가 된 것이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혁명"이라는 잎세의 창간호를 읽으며 아이가 어렸을 때 만났던 선생님의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이에게는 앞으로 나갈 힘을 주셨고 부모에게는 어려운 일상에서도 자녀를 키우고 그 안에 희망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잎세, IP世, IP세상, 세상을 세움을 이끄는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는 아이와 부모들이 바로 서는 곳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 은 경
2기 이상경 학생 어머니

수기 공모

잎세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는 뉴스레터가 되고자 합니다. 자유주제로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 부모님의 경우, '나만의 자녀양육법', '상담체험담, 교육생의 경우,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체험기' 등을 비롯하여, 어떠한 주제의 글도 환영합니다. 잎세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로 보내주십시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자격 :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생 및 학부모
- 응모기간 : 연중 모집
- 주 제 : 자유주제(제한없음)
- 분 량 : A4용지 한 페이지
- 접 수 처 :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최민경 전문위원

Tel. 02-3459-2743, E-mail. i321@kipa.org

<잎세>에 바란다

〈잎세〉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독자 여러분과 함께 발전하고 싶습니다. 〈잎세〉 홈페이지에서 실시되는 각종 설문조사를 통해 〈잎세〉에 대한 의견을 표현해 주시거나, 〈잎세〉에서 다루기를 바라는 주제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잎세〉를 통해 읽고 싶은 기사나 평소 궁금했던 주제라면 어떤 주제이든 환영합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자격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생 및 학부모
참여기간 연중 모집
주 제 자유주제(제한없음)
참여방법 설문조사 참여 :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홈페이지 ➜ 센터소식 ➜ 설문조사 참여
기사거리 제보 : 담당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담 당 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최민경 전문위원
Tel. 02-3459-2743, E-mail. i321@kipa.org

차세대영재기업인 2기 교육생 대상

기초상담 실시 안내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에서는 2011년 3월부터 2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상담을 통해 교육생과 전문위원이 일대일로 만나 성격, 진로, 학업, 생활 전반에 걸쳐 두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서울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시행될 개별상담에 2기 교육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간 권역별로 시행되며 구체적 일자는 향후 개별 메일로 공지
신청방법 개별 메일로 발송된 신청서를 작성 후 회신
상담내용 기질 및 성격검사와 진로발달검사에 대한 개별 해석 및 활용법
스트레스검사 및 셀리그만 장점검사 실시 및 해석
다양한 영역(심리, 교육, 진로, 영재성 등)에 대한 개별상담

2011년 연간 상담 일정

내 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초 상담	1기 교육생		2011년도 2기 교육생									
	전 국		서울 지역	경인 지역	충청 전라 강원 지역	경상 지역	전국	전국	충청 전라 강원 지역	경상 지역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19층
Tel. 02-3459-2743 Fax. 02-3459-2758 Web. www.ip-gifted.org/cgye